



마이크로컴퓨터 特輯號에 붙여

林 濟 鐸

漢陽大學校 工科學 教授(工博)
本學會 編輯委員會 非常任委員長

1971年 最初の 마이크로프로세서가 販賣된 이래로 半導体技術 및 컴퓨터·아키텍처는 눈부신 進歩發展을 이룩하였다.

지난 해로서 10週年을 지나게 된 지금은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그 모습을 들어내고 있으며 高水準 프로그래밍 言語의 開發, 動作 速度의 高速化, 消費 電力의 低減化를 指向하여 그 發展 速度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예를 든다면 4M 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며 스피드가 현격하게 向上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칩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각종 大型 計算機와 마이크로컴퓨터를 동일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meta OS가 開發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80年代에 科學技術의 劃期的인 發展을 꾀하고자 意慾으로 科學技術 5個年 計劃(1982~1986)을 수립한 바 있다. 컴퓨터 分野에 있어서는 現在의 小型 컴퓨터 單純組立 段階에서 1986년에는 마이크로컴퓨터를 國產化 할 것으로 計劃을 수립하고 여기에 240억원의 經費를 投資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國產 마이크로컴퓨터가 開發되면 우리의 독자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막대한 輸入 代替 效果는 물론이고 이와 關聯된 情報 産業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出現 10週年을 넘기는 저반의 現況과 추세에 비추어, 또한 우리 마이크로컴퓨터 國產化 計劃의 出發 線上에 서서 그 意義를 되새겨 보고, 그 技術的 特質을 밝히며 擴大一路의 應用分野를 再照明하여 86年 高地占領을 向한 旗手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本 電子工學會의 任務를 直感하면서 여기에 마이크로컴퓨터 特輯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現況과 展望”에서 그의 간단한 歷史와 現況, 그리고 最近의 動向과 앞으로의 展望 등, 마이크로컴퓨터에 관한 전반적인 情報를 제공하고 있으며 “ μ computer 國產化 動向에서는 우리 나라 컴퓨터의 國產化 現況과 展望을 마이크로컴퓨터를 中心으로 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고 있다. 검증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감안하여 마이크로컴퓨터의 利用度를 높이고 그 應用 分野를 擴大

해 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서 마이크로컴퓨터用 高水準 言語의 最近의 動向에 대하여 解説하였으며 “모니터 프로그램”에서는 M6802 키보오드 모니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構成을 소개하였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應用 分野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廣範하며 지금도 擴大一路에 있다. 여기서는 代表的인 두 가지 分野를 소개함으로써 그 例를 보이고 있다. 즉, “주변단말장치 기술”에서는 마이크로컴퓨터의 周邊端末裝置에의 應用技術을 事務自動化(OA)와 關連시켜 論하였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의용전자 분야에의 응용”에서는 醫用電子 分野에의 應用 現況을 患者모니터시스템등 몇 가지 代表性的인 例를 살펴 보고 있다. 마이크로컴퓨터·아키텍춰 부분과, 더 많은 應用 分野를 다루고 싶었으나 制限된 紙面으로 인해서 다음 機會로 미루게 된 것을 아쉬웁게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우리 會員 여러 분에게 多少라도 도움이 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더없는 多幸으로 생각하겠다. 끝으로 이 特輯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바쁘신 中에도 積極的으로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執筆者 諸位께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